

운송 Analyst 배기연

02. 6454-4879

kiyeon.bae@meritz.co.kr

RA 오정하

02. 6454-4873

jungha.oh@meritz.co.kr

2022. 7. 4 (월)



국내외 주요 지표 현황

건화물운임(BDI)

2,214.0p(-26.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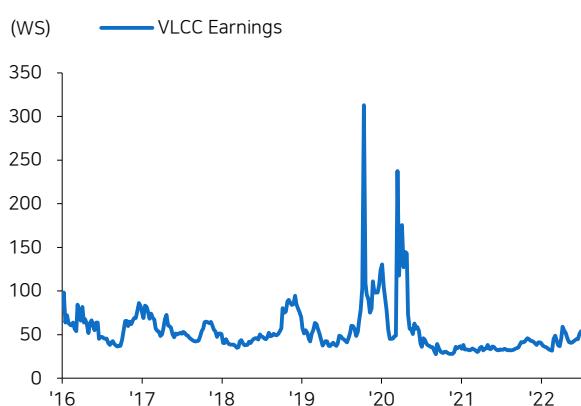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203.3(-12.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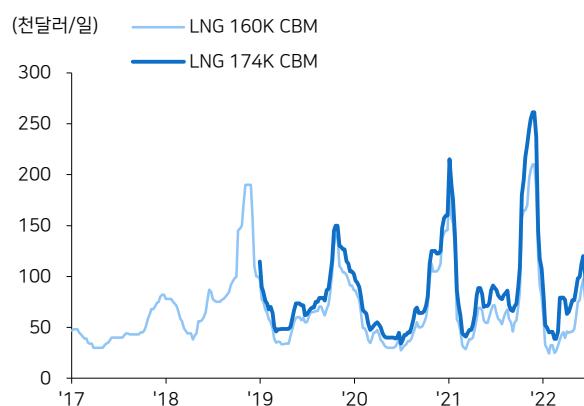
VLCC Spot Rate

54.0p(+3.1p WoW)



LNG Spot 운임

58.8p(-2.3p WoW)
70.0p(-6.0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61.5p(+0.0p WoW)
212.2p(+1.7p WoW)



항공시장 지표

259.9p(+0.9 DoD)
81.9p(-0.1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한국조선해양, LPG선 1척 821억에 수주

현대미포조선이 오세아니아 선주로부터 LPG운반선 1척을 821억원에 수주했다고 공시됨. 40,000CBM급 선박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 인도될 예정임. (선박뉴스)

CMA CGM to slash French freight rates after government pressure

프랑스 정부의 압박으로 CMA CGM이 일부 화주에 한해 운임을 10% 정도 낮춰주기로 했다고 보도됨. 프랑스 재경부 장관은 CMA CGM과 TotalEnergies에 업체들의 원가압박을 줄여줄 것을 촉구한 바 있음. CMA CGM은 8월 1일부로 운임을 520달러/FEU로 대형 유통사에 한해 낮춘다고 발표함. (Tradewinds)

Record LNG carrier newbuilding bonanza tops 100 ships in first half 2022

2022년 상반기 LNG선 발주량이 과거 연간 발주량도 초과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2022년 상반기 최소 91척인데, QatarEnergy 15척 고려시 최소 106척이 발주되었다고 알려짐. 선가는 174,000CBM 기준 연초 2.11억달러에서 6월 2.31억달러까지 상승함. (Tradewinds)

China set for growing role in global LPG trade, says Clarksons

중국이 LPG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도됨. Clarksons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2,450만톤을 수입했는데, 글로벌 수입량의 22%를 차지한 바 있음. 2011년 이후 CAGR 11%의 성장률을 보임. 중국의 석유화학업계의 연료사용량 및 PDH설비 증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함. (Tradewinds)

US federal regulator puts Freeport LNG restart on ice

미국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관리국(PHMSA)이 정밀조사 이후 Freeport LNG 터미널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연내 가동재개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도됨. 연간 1,500만톤을 처리하는 Freeport 터미널은 6월 8일 화재 이후 가동 중단된 바 있음. (Upstream)

미국 유럽 여행 취소해야 하나…휴가철 '항공대란'에 난리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며 전세계 여행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각국 공항·항공사의 인력부족 등으로 '항공대란'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됨. 지난 1일 기준 미국 항공 이용객은 약 249만명으로 2020년 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임. 그러나, 인력부족, 악천후 등으로 이날 낮 12까지 미국행 및 미국발 비행편 550편 취소, 2,200편이 지연됐다고 보도됨. (매일경제)